

PKM GALLERY

FRIEZE SEOUL 2026

PKM Gallery | Booth A15

September 2-5, 2026 | COEX C & D

출품 작가

윤형근 Yun Hyong-keun, **유영국** Yoo Youngkuk, **올라퍼 엘리아슨** Olafur Eliasson, **구정아** Koo Jeong A, **이근민** Keunmin Lee,

서승원 Suh Seung-Won, **정현** CHUNG, Hyun, **이정진** Jungjin Lee, **홍영인** Young In Hong, **정영도** Young Do Jeong, **이원우**

Wonwoo Lee, **샘바이펜** SAMBYPEN

PKM 갤러리는 프리즈 서울 2026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12인의 주요 작품과 신작을 선보인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는 윤형근, 유영국, 올라퍼 엘리아슨, 구정아, 이근민, 서승원, 정현, 이정진, 홍영인, 정영도, 이원우, 샘바이펜이 참여한다.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대표작을, 한국 추상 회화의 선구자 **유영국**은 1970년대와 1990년대의 주요 회화를 선보인다. 윤형근은 PKM 갤러리 개인전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의 개막과 실제 거주하며 작업했던 «윤형근의 집»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유영국은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탄생 110주년 기념 회고전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윤형근과 함께 SFMOMA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특히 주목할 작품은 **올라퍼 엘리아슨**의 대형 신작 <The surprising yet predictable phenomena of matter taking matter into its own hands>이다. 작가는 2018년부터 탐구해 온 렌즈 플레어(lens flare)의 시각적 패턴을 활용해 빛과 지각의 관계를 다룬 신작을 완성했다.

구정아는 오는 9월 리움미술관 개인전을 앞두고 <강세 Y> 시리즈의 새로운 에디션을 공개한다. 2026년 PKM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근민**은 직접 겪은 경험과 환각에서 출발한 파편화된 형상의 신작 페인팅을 출품한다. 기하 추상과 한국적 조형미를 탐구해 온 **서승원**,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온 **정현**의 주요 작품도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다. 서승원은 동시성(Simultaneity) 작품을, 정현은 그의 작업 활동 초기에 제작한 브론즈 인체상과 2026년 신작 드로잉으로 함께한다.

한편, 지난 4월 PKM 갤러리 전관에서 개인전 «Unseen/Thing»을 개최한 **이정진**은 아이슬란드의 풍경에서 출발한 <Unseen> 시리즈를 출품한다. 이 시리즈는 2025년 영국 『더 가디언』에서 별점 4점을 받은 바 있다. **홍영인**은 지난 6월 아트 바젤에서 솔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는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동물과 자연 등의 존재를 다룬 수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오는 10월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정영도**의 회화 작품과 함께 일상의 환기와 위트를 담은 **이원우**의 <Air Words> 시리즈, 대중문화와 고전 회화를 결합한 **샘바이펜**의 캐릭터 도상 작업도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출품작에 포함된다.